

『페어리 여왕』에 나타나는 페어리들*

이 진 아 (한국외대)

본 논문의 목적은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의 『페어리 여왕』(*The Faerie Queene*)에 등장하는 페어리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며, 특히 스펜서의 페어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민속학자 스투어트 샌더슨(Stewart Sanderson)은 페어리라는 용어 정의가 페어리 연구에 있어 출발점인 동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한 한 바 있다(Sanderson 31). 영한사전에서 ‘페어리’는 흔히 ‘요정(妖精)’으로 번역되는데,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요정(妖精)’을 “『1』요사스러운 정령. 『2』서양 전설이나 동화에 많이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불가사의한 마력을 지닌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페어리들이란 일차적으로 아동문학 작품과 영화에 등장하는 엄지크기 만한 엄지 공주나, 꽃이나 나무 혹은 시내 속에 사는 반짝이는 투명하고 오색찬란한 날개달린 정령, 혹은 한국 민간전승에 등장하는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도깨비처럼 보이는 악귀 같은 기괴한 존재 혹은 신선이나 선녀와 같은 존재들로 쉽게 상상될 수 있다.

그런데 스펜서의 페어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상이 오류라는 것은 스펜서가 작품의 제목에서 사용한 단어 “faerie”의 사전 정의에서 쉽게 드러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faerie’의 일차적 의미를 ‘페이(fay) 혹은 페어리들의 영역, 나라. 보통 스펜서의 『페어리 여왕』에서 묘사되는 상상의 세계를 지칭하며, 이 나라의 거주자들은 통념적으로 믿는 페어리들과 거의 혹은 전혀 닮지 않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통념적인 ‘페어리’(fairy)는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들의 일에 좋은 나쁜든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들이 믿는 체구가 자그마한 초자연적인 존재의 한 부류”라고 설명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설명하는 통념적인 페어리는 한국의 민간전승에 등장하는 도깨비나 신선, 선녀 등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간세계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살면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

- 1) 우리나라 민속전래설화는 20세기 초 개화기에 영어로 처음 번역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초창기 번역자들의 글들에 가끔 “fairy,” “goblin,” “hobgoblin,” “imp,” “ghost” 등 영어권 나라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이 번역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선한 초자연적 존재, 특히 “신선” 혹은 “산신령”은 “fairy” 혹은 “genii”라 번역했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 도깨비 등을 번역할 때에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 “Tokgaby (혹은 Tokgabby)”라고 부르던지 “ghost,” “imp,” “goblin”, “hobgoblin” 등을 구별 없이 섞어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20세기 초 영어권 사용자들은 페어리를 선하고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로 상상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동안 서양인이 번역 혹은 집필한 민속문헌 자료들의 기초 조사 보고서 『서양인이 쓴 민속 문헌 해제』에 수록된 문헌들 중 영어로 번역된 우리나라 전래 동화, 민간전승의 대표적 문헌들은 서양의 페어리들과 한국의 그와 유사한 존재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Griffis, Gale, Carpenter 참조. 특히 “나무꾼과 신선”의 이야기를 번역한 Griffis의 *Fairy Tales of Old Korea*의 “The Woodman and the Mountain Fairies”와 Carpenter의 “Woodcutter and the Old men,” 강원도에 갔다가 길을 잃고 신선들이 사는 곳에 가게 된 젊은이 이야기를 다룬 Gale의 “The Home of the Fairies,” 그리고 도깨비와 귀신 이야기를 다루는 Griffis의 “Tokgabi and his pranks,” “Tokgabi’s Menagerie,” “Pigling and her proud sister”와 Gale의 “The Old Woman Who Became a Goblin,” “The Awful Little Goblin,” “An Encounter with

그런데 스펜서의 페어리들, 특히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어리들은 이러한 통념적인 페어리들과 다르기 때문에 스펜서의 페어리가 어떤 존재인가 규명하는 것은, 복잡한 알레고리 작품인 이 작품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주제는 특별한 해안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페어리의 존재를 파악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다.²⁾ 페어리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왔으며 그 존재에 대한 탐구 또한 계속 되어 왔다. 영국에서 근대초기는 페어리의 황금시대라고 할 정도로 페어리 이야기와 전승이 사회 전반에 유행했던 시기였다.³⁾ 페어리 이야기들과 그 민속전승은 공정의 여흥 뿐 아니라 저술들, 일반 백성들의 민요, 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연극들에 자주 등장하였다(Latham 23-64).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은 페어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페어리 존재를 설명하는 진지한 저술들이 발행되었다. 스콧트 레지널드(Scot Reginald)의 『마법의 발견』(*Discoverie of the Witchcraft*, 1584), 제임스 1세(James I)의 『악마론』(*Daemonologie*, 1597), 로버트 커크(Robert Kirk)의 『비밀 왕국과 주문(呪文)과 주문(呪術)에 관한 소고(小考)』(*The Secret Common-Wealth & A Short Treatise of Charms and Spels*, 1691) 등은 페어리에 대한 당시의 대표적인 저술들이라 할 수 있다.⁴⁾ 커크의 저술은 스코트랜드의 페어리 민간전승을 상세히 설명하고

a Hobgoblin” 참조.

- 2) 페어리를 알아보는 해안(second sight)에 대해서는 커크가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Sanderson이 편집한 Kirk 59이하.
- 3) 16, 17세기 영국의 페어리들에 관한 대표적인 배경 연구로는 Latham, Briggs 참조. 16세기 페어리들 연구에 한정할 경우, Latham 1-23; Briggs 12-24 참조. 이 연구들에 덧붙여, 스펜스(Lewis Spence)의 페어리 연구는 영국 페어리들의 기원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고, 아일랜드 민속 신화와 페어리들에 대해 관심과 조예가 깊었던 시인 예이츠(W. B. Yeats)의 *Fairy and Folk Tales of Ireland*는 스펜서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아일랜드 페어리 전승문학과 이야기들에 대한 좋은 참고 자료이다.
- 4) 페어리에 대한 연구는 각 시대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종교개혁의 격동기인 근대 초기 영국에서 페어리는 마녀 재판과 같은 이교적 미신 행위와 강하게 연상되어 연구되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지배되는 현대의 페어리 연구의 경우에는 페어리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을 UFO에 대한 신념과 연결시키기도

있는데 근대 초기 페어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설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레지날드와 제임스 1세는 페어리를 악령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며 당시 민간 신앙에 퍼져있던 귀신, 악마 등의 초자연적 존재와 결합한 마법행위와 특히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1세의 글은 국왕이라는 그의 위상 때문에 페어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당시의 권위적인 견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 시절에 이 글을 썼는데 악마 존재의 부정은 곧 신의 존재 부정으로 간주하고(54-55) 귀신, 악마 그리고 그들과 관계된 마법과 마녀들을 척결하는 것이 신앙의 수호자인 국왕으로서의 중요한 임무라 믿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이성과 신앙을 미혹시키는 악마들의 종류, 특성, 마술 행위 등을 다룬 『악마론』을 저술하였다. 그가 이 저술에서 페어리를 악마적인 영들의 한 종류로 분류한 것은 그를 비롯한 당시 사람들이 페어리 존재를 확실히 믿었음을 잘 입증한다. 그가 통치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소위 마술, 마법을 행하는 마술사, 마녀들이 페어리들과 관계되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처형당하곤 하였다(Spence 16-17).⁵⁾

이렇게 영국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페어리와 페어리 문학이 유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⁶⁾ 당시 페어리 문학을 유행시킨 일차적인 동인은 스펜서의 『페어리 여왕』이었다(Wooden 98;

한다(Rojcewicz 479-514). 페어리들의 아이 바꿔치기(changeling)는 페어리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인데, 페어리 전승문학의 바꿔친 아이의 이야기는,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육체적 정신적인 발달 장애와 이상을 가진 아이들과 관련이 있다고도 주장된다(Munro 251-83).

- 5) 잉글랜드에서도 같은 민속 신앙이 퍼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에서처럼 마녀 재판이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더피(Maureen Duffy)는 그 이유에 대해, 잉글랜드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접하는 연극, 시, 노래 등에 자주 페어리들이 등장했으므로 그 풍속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23).
- 6) 브리그즈는 16세기 영국인들이 교회의 절대적 권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페어리 민속 신앙이 퍼졌을 것이라 추정하고(Briggs 18-19), 레이썸은 당시 셰익스피어와 드레이크 같은 평민 출신 문인들이 민속자료나 민간전승을 작품 속에 도입하면서 페어리 유행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Latham 16). 우든(Wooden)은 1590년대 풍미했던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 “영국적인(English)” 것에 대한 관심이 페어리 전승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Wooden 100).

Latham 18).⁷⁾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페어리들은 일반적으로 민간전승뿐 아니라 전통적인 로만스 문학과 여왕을 위한 궁정 여흥극 등에 등장하는 페어리 요소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간주된다.⁸⁾ 『페어리 여왕』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말하듯이, 페어리 전승문학은⁹⁾ 이 작품의 중심 원천들 중의 하나이다. 민간전승에는 한 시대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 그리고 예식, 제도와 과학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Bascom 344), 스펜서가 그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페어리 요소들은 이 작품에 반영된 16세기 영국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이라

-
- 7) 당시 페어리 유행의 원천에 대해 우든은 스펜서의 작품이 당시 페어리를 유행시킨 첫 문학 작품(1590)이고, 스펜서의 서사시가 출판된 후 상연되고(1595) 출판된(1600)된 셰익스피어의 *A Midsummer Night's Dream*이 문학적인 페어리의 전형을 만들어 내어 유행시켰다고 설명한다. 레이썸의 경우에는 스펜서의 작품과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 페어리들이 등장한 이후 페어리 문학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두 학자 모두 르네상스 페어리 연구에서 스펜서는 잠시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셰익스피어의 페어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셰익스피어가 이후 영문학 상의 페어리의 전형을 창조하였다고 공통된 주장을 한다. 이 주장은 엘리자베스 시대 페어리 문학에 있어서 스펜서의 영향이나 *Faerie Queene*에 대한 논의 없이 셰익스피어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당시 페어리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어리 문학에 있어서 스펜서의 공헌과 영향이 우선 논의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8) *Spenser Encyclopedia*의 편집자들은 스펜서의 페어리의 구체적인 주요 원천은 *Huon of Bordeaux* (tr. Lord Berners, 1534)와 말로리(Malory) 그리고 중세 로만스라고 설명하고, 에드윈 그린로(Edwin Greenlaw)와 찰스 리드 바스커빌(Charles Read Baskerville)은 스펜서의 작품이 1575년 여왕을 위해 케닐워쓰(Kenilworth)에서 상연된 “Princely Pleasures”와 우드콕크(Woodcock)에서 상연된 “The Queen of the Fayry”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Greenlaw 105-107; Baskerville 49-54). 이후 페어리들은 여왕을 위한 공연들과 궁정 가면극, 연극 그리고 그녀의 즉위 기념식에 행해지던 마상창시합장의 의전 행사 때에도(Strong 139) 등장하였다. 에섹스(Essex) 백작과 필립 시드니 경(Sir Philip Sidney)가 이 공연들과 마상 창시합에 중요하게 연루되어 있고, 그들과 관계 있는 스펜서의 경력을 고려할 때 그린로와 바스커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 9) 본 논문에서 페어리 전승문학(fairylore)은 페어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페어리들이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마술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민간전승이야기들과 문학 작품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페어리 전승문학이라는 용어는 민간전승이나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페어리라는 존재와 페어리 존재와 관련된 색다른 경험들, 그 경험들을 다룬 이야기들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페어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작품을 그 가장 기본적인 원천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 작품의 난해한 다층적 알레고리의 의미와 구조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페어리와 페어리 전승문학이 스펜서의 서사시의 매우 중요한 원천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그다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페어리 여왕』에서 페어리 기사가 처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2권, 특히 노래 10을 중심으로 스펜서의 페어리의 기원, 특성 등을 주로 16, 17세기 영국인들이 상상하고 믿었던 페어리들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 작품의 페어리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스펜서가 그의 서사시에서 주인공으로 찬양하는 페어리 여왕과 훌륭한 페어리들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레이썸이 지적하듯이(Latham 34-35) 당시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존재들이었다. 스펜서의 시각은 16세기 영국인들, 특히 지성인들의 페어리에 대한 시각과 매우 달랐다. 당시 지식인들은 통념적으로 초자연적 존재로 간주하는 페어리들에 대해 의심과 경멸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페어리를 소재로 서사시를 쓰겠다는 스펜서의 계획에 대한 친구 가브리엘 하비(Gabriel Harvey)의 반응일 것이다.

분명히, 나는 설득력 있는 문체의 세련됨이나 시적 창안의 우수성에 있어 자네가 헤로도투스를 본 따 아홉 뮤즈의 이름을 붙인 『아홉 희극』이 아리오스토의 『희극』에 더 근접했는지, 『엘프 여왕』이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에 더 근접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네. 자네는 지난 편지들 중 한 편지에서 『엘프 여왕』으로 아리오스토의 서사시와 겨루어 그를 모방하고 넘어서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네 . . . 그런데 나는 자네 소재에 그다지 찬성하지 않네. 자네 눈에 만일 페어리 여왕이 아홉 뮤즈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도깨비가 아폴로에게

10) 그린로가 스펜서의 페어리 신화에 대한 글을 발표한 후(1918), 라쓰본(Isabel Rathbone)이 스펜서의 페어리들에 대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였고(1937), 스페어(Arestad Sverre, 1947)와 우드브리지(L. Woodbridge, 1986)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 램(Mary Ellen Lamb, 2000), 우드콕크(Matthew Woodcock, 2004)가 페어리에 대한 논문과 책을 각각 출판하였다.

서 화관을 빼어 달아난다면, 그렇다면 내 말 주의해서 듣게. 이제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네. 이 한번이 끝이네. 그리고 하느님이나 어떤 착한 천사가 자네 생각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 때까지 잘 지내게. (94-95)

스펜서는 친구 하비에게 최근에 쓴 희극과 『페어리 여왕』의 일부를 보내어 평을 부탁했는데, 하비는 답신에서 페어리 이야기가 이탈리아 대 문호들의 서사시에 버금가는 영국의 서사시의 소재로는 부적절하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램도 지적하듯이, 이 편지에 나타난 페어리에 대한 하비의 태도는 페어리 전승문학이 대중 문학에 가까운 구비 문학으로 간주되어 당시 지식인들과 현대 스펜서 학자들에 의해 무시되고 간과되는 좋은 예이다(84-85). 하비가 고전 문학 전통과 비교하여 분명 페어리 전통을 경시하는 태도는 페어리에 대한 당시 부정적인 통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페어리는 주로 사악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의 삶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고 인간보다 작거나 추악한 물골의 존재로 인간과 다른 존재, 흔히 마녀나 미술사, 악마와 결탁하는 초자연적 존재라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근대 초기 영국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상상하거나 믿었던 페어리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다(Briggs 117; Latham 41-48; Sanderson 41; Spence 53). 첫째, 페어리들은 타락한 천사들로 간주되었는데, 이 기원은 가장 오래된 페어리 기원으로 추정된다. 제임스 1세가 “페어리”(Phairie)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악령(devil)의 한 종류로 분류한 것은 페어리를 타락한 천사와 관련 짓는 민간전승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James I 73). 또한 밀튼(Milton)이 『실낙원』(*Paradise Lost*)에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페어리 엘프들”(Faerie Elves, 1.781)이라고 부른 것도 타락한 천사로서의 페어리 개념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페어리들은 의인화된 자연의 정령들로 간주되었다. 물, 호수, 산, 꽃, 나무, 돌 등의 정령들이 바로 이 페어리들이다. 이 개념은 고전 신화의 님프와도 관계가 있으며, 이 개념은 현대에까지 전해져 아동 문학의 삽화나 영화, 만화에서 꽃과 나무속의 작은 정령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셋째, 페어리들은

죽은 인간들의 영혼이라고 믿었다. 죽은 자의 영혼으로서의 페어리 개념에는, “천사와 인간의 중간”에 위치한 영으로서의 페어리(Sanderson 41)¹¹⁾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기원의 페어리들의 공통점은 페어리를 보통 인간과 구별되는 영적이고 초자연적 존재로 규정하는 점이다.

그런데 스펜서의 페어리는 이들 페어리들과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스펜서의 페어리는 구전 전승에 의해 만들어져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가진 인간이다. 스펜서는 페어리의 역사와 기원을 페어리가 수호기사로 등장하는 2권에서 설명하고 있다. 절제(temperance) 덕의 수호기사인 가이연(Guyon)은 아서(Arthur)와 함께 알마(Alma)의 집에서 기억(Memory)의 안내를 받아 각자의 선조들의 역사기록을 읽는다. 가이연이 읽는 역사서는 “페어리 왕국 고대사”(Antiquitee of Faery Lond)로 페어리들의 역사를 그 시초에서부터 기술하고 있다.

그 책은 태초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많은 동물들의 여러 부분들을 모아 창조한 과정과,
그 후 하늘에서 불을 훔쳐 자신의 작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조브에 의해 그의 생명을
빼앗기고 독수리에게 심장을 뜯기는 연유를 말해주었다.

이렇게 창조한 인간을 그는 엘프라 불렀으니, 즉
살아있는 존재로, 모든 엘프 종족의 첫 조상이 되었다.

It told, how first *Prometheus* did create
A man, of many partes from beasts deriued,
And then stole fire from heauen, to animate

11) 커크가 기록한 페어리들이 특히 이 개념에 속한 페어리들이다. 커크는 페어리 신앙이 그리스도교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교리 속에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페어리의 본질, 특성, 외모,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커크가 죽은 후, 죽은 것이 아니라 페어리들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Sanderson의 commentary 19-20).

His worke, for which he was by *Ioue* depriu'd
Of life him self, and hart-strings of an *Aegle* ryu'd.

That man so made, he called *Elfe*, to weet
Quick, the first authour of all *Elfin* kind: (2.10.71.5-9, 72.1-2)¹²⁾

하비는 스펜서가 고전신화보다 품격이 떨어지는 페어리 이야기를 서사시의 소재로 택한 것을 못마땅해 하였는데, 스펜서는 고전 신화를 이용하여 창세기의 창조 신화를 반향하는 페어리 창조 신화를 만들어 냈다. 스펜서의 페어리들은 통념적인 페어리들과 달리 신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이며,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처럼 그들 나름의 고유한 창조 신화를 가진 인간 종족이다. 스펜서가 이용한 프로메테우스에 의한 인간 창조 설화는 후기 고전 문학가 오비디우스(Ovidius)와 나탈레스 코메스(Natales Comes)의 영향을 받았는데(Variorum 1, 336), 이미 정제된 재료라 할 수 있는 피조물의 부분들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페어리 인간이 창세기의 흙으로 창조된 인간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 즉 페어리 인간의 “근원적인 우수성”을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Berger 108-109). 페어리 인간은 창세기의 인간이 겪는 죄와 타락, 벌 그리고 은총에 의한 구원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죄와 벌은 프로메테우스의 것이고 고통도 그의 몫이 되므로 타락 후의 아담과 이브의 자손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스펜서의 페어리들은 창세기의 신화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과 죽음의 질서와 법칙에 속한 인간들이었다.

페어리 인간 종족의 선조는 엘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엘프는 아담처럼 개인을 지칭하는 동시에 페어리 종족 전체를 지칭한다. 엘프(‘elf’ 혹은 ‘aelf,’ 고대 영어로 ‘alven’)는 앵글로 색슨어로 ‘초자연적’(supernatural)이란 의미로, 앵글로 색슨인 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칭할 때 사용한 단어이다.¹³⁾ 스펜서가

12) 『페어리 여왕』작품 인용은 Hamilton이 편집한 *The Fairie Queene*의 개정판을 따른다.

13) 이어지는 ‘fairy’와 ‘elf’ 등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논의는 윌리엄스(Noel Williams)의

페어리 인간의 첫 조상에게 ‘엘프’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스펜서가 의도적으로 매우 많이 모방한 초서 영어의 영향일 수 있다. ‘fairy’라는 영어단어는 매우 복잡한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되는데, 고대 불어에서 ‘환상, 마술’ ‘환상의 나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간’ ‘초자연적인 것’ 등을 의미하는 ‘faer,’ ‘fae,’ ‘fee,’ 그리고 ‘운명 지어진’을¹⁴⁾ 의미하는 고대 영어 ‘faege’ 등의 단어들에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 때 ‘fairy’라는 개념은 인간이건 정령이건 피조물보다는 현상이나 경험, 사건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주로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일차적으로 로맨스와 같은 문학 언어였던 ‘fairy’와 민간전승과 구전전승에서 더 많이 쓰인 ‘elf’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초서는 ‘fayerye’를 주로 장소나 경험의 특성을 묘사할 때, ‘elf’는 피조물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으며, 집합명사로 ‘fayerye’를 몇 번 사용하기는 했으나 결코 개체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적은 없었다(Williams 469). 스펜서가 초서식 중세 영어를 그의 작품들에서 많이 실험한 사실을 감안할 때, 페어리 인간을 ‘엘프’라 부른 것은 초서식 중세 영어의 의미를 살리려 한 것일 수 있다. 또한 하비가 스펜서에게 보낸 편지에서 “페어리 여왕”(Faeirie Queene)과 “엘프 여왕”(Elvish Queene)을 혼용하고(Harvey 94), 스펜서 자신도 페어리 나라를 “엘프 나라”(Elfin land, 3.5.4)라고도 했듯이, 당시 ‘엘프’와 ‘페어리’는 서로 같은 의미로 구별 없이 사용되었었다.¹⁵⁾

스펜서는 이 엘프 인간의 특성을 한 마디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Quick)라고 요약하는데, 해밀튼은 이 단어가 “초자연적인 지하세계의 피조물”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고(Hamilton 주석 참조), 버저는 이 단어가 엘프 종족의 영웅적 우

“The Semantics of the Word Fairy”를 주로 참조하였다.

- 14) ‘fairy’의 어원이 라틴어 ‘fatum’(fate)와 관계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페어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이다. 윌리엄스의 논문과 스펜스 1쪽 참조.
- 15) 커크의 엘프에 관한 정의를 보면, 엘프는 페어리와 동일시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키가 한 엘(115센티미터)을 넘지 않는 페어리의 한 부족”을 의미한다(Kirk 115). 따라서 17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 엘프는 좀 더 세분화된 종류의 페어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수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109). 그런데 그보다는 “Quick”의 사전적 여러 의미들이 공통적으로 육신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점을 주목할 때(OED), 스펜서가 엘프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사용한 이 단어는 인간으로서의 엘프의 특성을 가장 잘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스펜서의 엘프는 통념적으로 상상하듯이 죽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인 것이다. 동시에 “quick”이란 단어에 함축된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은 엘프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간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엘프는 페이와 결혼하는데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창조신화 속에 함축되어 있는 페어리 인간 종족의 우수성이 배가된다.

[엘프]는 지친 발걸음으로 온 세상을 방황하다,
아도니스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창조물을
발견하니, 그의 마음에, 지상의 인간이 아니라
정령이거나 천사로 생각되는,
모든 여자들의 조상이었다.
그리하여 그에 맞게 *페이라* 부르니,
이들에게서 모든 페어리들이 유래하고 그 적법한 혈통이 시작되었다.

[Elf] wandring through the world with wearie feet,
Did in the gardens of Adonis find
A goodly creature, whom he deemd in mind
To be no earthly wight, but either Spright,
Or Angell, th'authour of all woman kind;
Therefore a *Fay* he her according hight,
Of whom all Faeryes spring, and fetch their lignage right. (2.10.72.3-9)

홀로 방황하던 엘프가 아도니스 정원에서 발견한 존재는, 그의 눈에 당시 통념적으로 ‘페어리’라고 믿었던 천사나 정령과 같이 보이는 존재로 보인다. 여기서 페이가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어리와 같은 존재인지 아닌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데, 5행에서 여자들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으니 그녀도 인간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밀튼의 『실낙원』의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에게 반하여 여신과 같은 존재로 평가하듯이, 엘프도 인간 페이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사로잡혀 그녀에 대해 유사한 찬사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엘프와 달리 창조 신화가 없는 페이는 엘프가 이름 불러줌으로써 바로 그 이름의 속성과 특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

엘프/페어리 종족의 여자 조상이 되는 페이가 아도니스 정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페어리 인간 본질의 중요한 면을 암시한다. 『페어리 여왕』 3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아도니스 정원은 비너스와 그녀의 연인 아도니스가 영원한 사랑의 행복 속에 거처하는 곳으로 생명과 사랑의 근원을 상징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정원에서 유래하는데 형상을 받아 세상에 보내졌다가 죽음을 통해 그 본질은 다시 이 정원에 돌아와 오랜 시간을 지낸 후 다시 다른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진다(3.6.31-38). 페어리들의 선조 어머니인 페이가 아도니스의 정원에서 발견된 것은 그녀가 페어리 생명의 근원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페어리들이 바로 이런 순환적인 생명과 죽음의 창조 질서와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페어리들은 아담과 이브와는 다른 창조 질서와 법칙 속에 속한 인간 존재인 것이다.

페어리의 순환적인 생명과 죽음에 대한 스펜서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이 믿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커크는 페어리들의 삶에 대한 민간전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페어리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지만, 종국에는 죽거나 혹은 그 페어리 상태를 벗어나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믿음 중 하나는 그들에게서는 아무 것도 죽어 없어지지 않고 (태양이나 한 해처럼) 모든 것이 크게 혹은 작게 원을 그리며 순환하면서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창조계의 모든 물체가 움직이고 (이는 생명의 속성인데) 움직이는 모든 것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고 이렇게 계속되어 생명을 담는 최소 단위 혈구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처럼. (Kirk 55-56)

커크는 17세기 페어리에 대한 스코틀랜드 지역의 민간 신앙과 전승을 다루고 있지만, 그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16, 17세기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를 포함하는 현재 영국이라 불리는 지역의 페어리 민간전승에 대한 완전하고 체계적이고 자세한 저술로 간주된다. 커크가 설명하는 페어리들의 생명과 죽음의 순환법칙은 아도니스 정원의 순환적인 생명법칙과 유사하다. 페어리 인간들은 선조 어머니 페이를 통해 아도니스 정원의 순환적인 생명력을 이어받았다고 하겠다.

라쓰본도 지적했듯이, 스펜서가 페어리 용어나 주제를 사용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205), 스펜서는 작품 전체에서 대체로 ‘엘프’는 남자 페어리를, ‘페이’는 여자 페어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예: 3.3.26, 4권의 아가페). ‘페이’(fai, fae, fay)란 말은 중세 로맨스의 ‘모르간 르 페이’(Morgan le Fay)처럼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켈트 전승에서 여신인 ‘fa’a’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원적으로 ‘페어리’도 ‘페이’에서 유래한다(Williams 463-64). 스펜서는 페어리 인간의 여자 선조를 ‘페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녀를 통념적인 ‘페이,’ 즉 그녀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자이며 그녀에게서 태어날 페어리 인간들도 보통 인간들과 다른 탁월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스펜서의 여자 페어리들은 구체적으로 ‘페이’로 언급될 때 인간 문화에 도움이 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자들로 더 부각된다.¹⁶⁾ 아서가 알마의 성에서 읽는 그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에 등장하는, 퀴쓸린(Quitheline)의 아내 머샤(Mertia)는 왕인 남편에게 국가 통치법(Mertian lawes)을 가르친 여성으로 그녀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녀가 페이, 즉 보통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 기원을 가진 존재일 것이라 판단했다(2.10.42). 트리아몬드(Triamond) 삼형제의 어머니 아가페(Agape)도 마술적인 뛰어난 능력을 가진 페이로서(4.2.44) 그녀의

16) 통념적인 ‘페이’들과 연상되는 초자연적인 마술적 능력으로 해를 끼치는 사악한 페이도 있다(예: 2.2.43). 구체적으로 ‘페이’라 불리지는 않지만 루씨페라(Lucifera), 두엡싸(Duess), 아크레이지아(Acrasia), 페드리아(Phaedria) 등도 페어리 나라의 여자 페어리들로 사악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페이들이라고 하겠다.

이름이 시사하듯 도움을 주는 페이의 좋은 예이며, 그녀의 딸 캄비나(Cambina) 역시 그런 능력으로 다른 인간들의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는 좋은 페이이다(4.3.40). 이렇게 선하고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는 스펜서의 페어리 인간들은 사악한 정령으로 주로 간주되던 당시의 통념적인 페어리들과는 사뭇 다르다.

스펜서의 페어리 인간 종족은 로맨스에 등장하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를 연상시키는 페이와 엘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다. 스펜서의 페어리 종족들은 곧바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국가를 건설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여 정치적으로 건국 초기부터 강대국의 입지를 확보한다(2.10.72). 스펜서의 페어리들이 인간의 한 종족이기 때문에, 이 페어리들이 어떤 종족 혹은 민족의 알레고리인가 하는 점은 간간히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리로는 스펜서가 아일랜드에 오래 거주한 것을 근거로, 스펜서의 페어리는 켈트 페어리 전통의 영향을 받았으며 스펜서의 페어리들은 웨일즈사람들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튜더가문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였다(110-115). 라쓰본은 스펜서의 페어리들은 흔히 신화적으로 인간과 결혼한 페어리에서 유래한 영국의 귀족 가문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167-80). 그리고 흄(Anthea Hume)은 스펜서의 페어리는 피그미 같은 악귀나 요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에 덧붙여 이교 신화 속에 창조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45-61).

통치체제를 보면 스펜서의 페어리 왕국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페어리 왕국과 유사하다. 제임스 1세는 페어리와 페어리들의 정치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 네 번째 종류의 영들은 이교인들이 *다이아나*와 그녀의 방황하는 시녀들이라 불렀는데 우리들 사이에서는 *페어리*로 통한다. . . 환상에 근거한 사람들의 저 헛된 잡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페어리의 왕과 왕비가 있고, 그들의 근사한 궁과 시종들이 있다느니, 그들이, 말하자면, 온갖 좋은 직무를 행한다느니, 그들이 인간 남자와 여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말 타고 다니고, 먹고 마시고, 온갖 다른 행동들을 한다는 등 떠들어댄다. (James 1 73-74)

제임스 1세의 페어리 왕과 여왕에 대한 설명은 당시 스코틀랜드 마녀 재판에서 행해진 진술에 근거를 둔 것으로, 페어리들은 왕국을 형성하고 계급사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믿음은 당시 인간 세계의 왕정체제를 페어리 세계에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페어리 왕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스펜서는 당시 통념적인 페어리들의 왕국의 위치와는 다른 설명을 한다. 민간전승에서 페어리들이 모여 왕국을 이루고 사는 곳은 지리적으로 흔히 죽은 자들의 땅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세계나(Duffy 76-77), 바다 건너 신들의 휴양지와 같은 낙원이나, 시골 언덕의 우묵하고 깊은 곳, 황량한 지역(Spence 44-50)이라 여겼다. 스펜서는 자신의 서사시의 배경이 되는 페어리 왕국의 위치에 대한 독자들의 의문을 이미 페어리 기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2권 서두에서부터 엄두에 두고 있었다.

지극히 엄위하신 여왕폐하, 저는 잘 압니다,
 이 모든 유명한 고대역사가
 부질없는 지나친 상상의 산물이요
 꾸며낸 속임수며,
 실제 기억의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될 것을.
 왜냐하면, 살아 숨 쉬는 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
 저 복된 페어리 나라의 위치를 알지 못하니,
 제가 진실로 찬양하는 그 왕국, 어디인지 보여주지 못하나,
 오래된 두루마리 기록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보증합니다.

Right well I wote most mighty Soueraine,
 That all this famous antique history,
 Of some th'abundance of an idle braine
 Will iudged be, and painted forgery,
 Rather then matter of iust memory,
 Sith none, that breatheth liuing aire, does know,
 Where is that happy land of Faery,
 Which I so much do vaunt, yet no where show,

But vouch antiquities, which no body can know. (2. Proem 1)

스펜서는 페어리 역사를 설명하면서 페어리 나라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오래된 두루마리 기록,” 즉 그가 2권 노래 10에서 다룬 페어리 왕국의 역사기록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페어리 나라의 현실적인 존재 가능성을 주장한다. 또한 분명히 존재했으나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발견된 페루나 버지니아 같은 신세계의 예를 들어, 페어리 나라의 구체적 존재 가능성을 역설한다(서시 2-3). 곧 이어 그 땅의 흔적은 잉글랜드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잉글랜드와 페어리 나라의 지리적 연관성을 암시한다. 그렇게 보면 스펜서의 “페어리 나라는 보이는 세계 속에, 탐험되지 않은 대양의 섬처럼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 세계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사는 곳”(Evans-Wenz 18)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페어리 나라의 위치는 이 작품의 알레고리적 의미를 풍요롭게 하며, 무엇보다도 페어리 나라를 인간 내면세계의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도 하다.

스펜서는 페어리를 인간 종족으로 묘사하면서 그 이름에서 연상되는 민간전승의 초자연적 요소들과 부정적인 점들을 제거하고 또 그들에게 역사성을 부여하여, 브리튼인, 색슨인과 구별되는 페어리인의 특성을 만들어나간다. 아서가 읽는 역사기록과 가이언이 읽는 역사기록이 다르듯이, 페어리 나라는 알레고리적으로 잉글랜드를 반영하지만 작품 속에서 잉글랜드(혹은 브리튼 왕국)와는 다른 역사를 가진 독자적인 나라이다. 페어리 왕국은 위대한 페어리 선조들의 공적을 통해 우선 정치적으로 강한 입지를 마련한 후,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나간다.

그의 아들이 엘피넬이며,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사악한 고블린들을 제압했다.
그러나 엘판트의 명성이 가장 높으며,
온통 수정으로 판테아를 건설했다.
그리고 엘파르는 두 거인 형제를 죽였는데,
한 거인은 머리가 둘이고 다른 거인은 머리가 셋이었다.

그리고 엘피노르는 마술에 능했다.
 그는 마술로 유리 같은 바다위에
 청동다리를 지었는데, 그 소리가 천둥소리 같았다.

His sonne was *Elfinell*, who ouercame
 The wicked *Gobbelines* in bloody field:
 But *Elfant* was of most renowned fame,
 Who all of Christall did *Panthea* build:
 Then *Elfar*, who two brethren gyauntes kild,
 The one of which had two heades, th'other three:
 Then *Elfinor*, who was in magick skild;
 He built by art vpon the glassy See
 A bridge of bras, whose sound heauens thunder seem'd to bee. (2.10.73)

주변 종족들을 정복하고 수도 클레오폴리스에 왕궁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여 발전된 문명국의 모습을 가진 페어리 나라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의 페어리 세계처럼 도시에서 떨어진 숲과 시골, 혹은 광야나 늪지대 등 문명과는 거리가 먼 민간 신앙 속의 페어리 나라와는 매우 다르다. 또한 페어리들이 정복하는 고블린과 거인 종족들은 민간전승에 흔히 등장하는 존재들인데, 고블린의 경우 13세기 이후 대략 세 종류로 구별되기 시작한 페어리들 중 한 종류이다.¹⁷⁾ 고블린과 거인들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인데. 이들을 페어리가 정복했다는 것은 민간전승의 페어리와 연상되는 부정적인 면을 페어리들에게서 제거하는 동시에 페어리인들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마술도 민간전승과 로맨스 장르에 등장하는 페어리와 땔 수 없는 요소이다. 민간전승에서 페어리의 마법은 인간 마녀나 마술사들의 마술 능력(witchcraft)의 원천으로 간주되어 마녀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였으나, 스펜서는 엘피노르의 마술을 페어리 나라의 문화 건설에 공헌하는 능력으로 변용시키고 있다. 아서가 읽는 브

17) 이들 세 종류의 페어리는, 자그마한 체구의 페어리, 갈색 난쟁이 악귀(goblin, brownie) 그리고 어느 정도 품위가 있는 페어리 아가씨 등이다(Spence 9).

리튼 역사가 인간의 온갖 범죄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반면, 가이언이 읽는 페어리 역사는 위대한 페어리 군주들의 훌륭한 통치와 업적들로 계속 이어진다. 이 역사서는 오베론의 딸 타나퀼(Tanaquill), 글로리아나(Gloriana) 여왕이 통치하는 시기까지 기술하고 있다. 알레고리적으로 오베론은 헨리 8세이고 타나퀼, 글로리아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당시 민간 전승과 페어리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통념적인 페어리들과 비교하여, 스펜서의 『페어리 여왕』에 등장하는 페어리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살펴보았다. 수호기사들 중 가이언과 칼리도어(Calidore)가 페어리이며, 인간 종족인 페어리는 분명 브리튼족이나 레드크로스과 같은 색슨족들과 구별되는 인간 종족이다. 작품에서 아서나 브리토마트(Britomart), 아트걸(Artegall), 레드크로스처럼 구체적으로 국적이 명시되지 않는 그밖에 모든 등장인물들은 페어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페어리들은 인간보다 체구가 왜소하다는 점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마술을 부릴 줄 알고 카멜레온처럼 자유자재로 그 모습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지만, 스펜서의 페어리들, 특히 선한 페어리들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다. 체격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스펜서의 페어리는 브리그즈가 “영웅 페어리”(heroic fairy)라고 부른 페어리들과 유사할 수 있다(Briggs 13-14). 켈트 전승에서 페어리는 무리 지어 사는 집단 페어리(Trooping fairies)와 홀로 사는 은둔 페어리(Solitary fairies) 두 종류가 있고, 집단 페어리는 다시 영웅 페어리와 난쟁이 페어리 두 종류로 나뉜다. 그 중 영웅 페어리들은 인간과 체격이 비슷하거나 더 크며 페어리들 중 귀족 계층에 속한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영웅 페어리들이 신의 위치에서 쫓겨나 초자연적인 존재인 페어리가 되었다고 믿었다. 예이츠의 시 『불벤 산자락에』 (“Under Ben Bulben”)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존재 “말을 탄 사람들”(horsemen)이 바로 영웅 페어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형만 스펜서의 페어리와 유사할 뿐이고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기에, 스펜서의 페어리를 ‘영웅 페어리’와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스펜서는 브리그즈가 분류한 또 다른 종류의 페어리, ‘일반 페어리,’ 즉 통념적으로 페어리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습성, 속성들은 작품의 모두 악한 페어리들에게 부여한다. 미숙아 같은 페어리 아이를 남겨 놓고 인간 아이를 훔쳐온다던가, 마술을 부려 형상을 바꾸던가, 모습을 감추고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가하는 고약한 페어리들이 그 예들이다. 그리고 이들 나쁜 페어리들은 매우 알레고리화되어 선한 페어리인들과는 달리 페어리라기보다는 알레고리화된 악의 개념으로 더 쉽게 인식된다.

스펜서의 『페어리 여왕』에 등장하는 페어리들은 보통 인간들보다 뛰어난 점들이 많은 인간 종족으로, 우리말로 선녀나 요정과 일치하는 존재들은 아니다. 물론 민간전승과 페어리 이야기들 속에 우리 나라의 선녀나 요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존재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을 스펜서의 작품 속의 페어리들, 특히 주요 등장인물로 활약하는 페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페어리들을 ‘선녀’ ‘요정’ 혹은 ‘선인(仙人)’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스펜서의 페어리들의 속성을 매우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페어리’라는 용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페어리들을 프랑스인, 이탈리아인과 같이 인간종족의 고유명사로 페어리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페어리 여왕』에 등장하는 페어리들은 나쁜 페어리 인간도 있고 좋은 페어리 인간도 있어, 페어리는 선과 악 어느 한 특성이 강조된 천사나 악마, 혹은 선녀나 요정이 아니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의 알레고리가 된다.

주제어: 에드먼드 스펜서, 『페어리 여왕』, 페어리, 페어리 전승문학, 민간전승, 페이, 엘프, 페어리 나라

인용 문헌

- 정성화 외. 『서양인이 쓴 민속 문헌 해제』.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년.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08년. 2009년 5월 25일.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Arestad, Sverre. "Spenser's 'Faery' and 'Fairy'." *Modern Language Quarterly* (1947): 37-42.
- Bascom, William R. "Four Functions of Folklore."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7 (1954): 333-49.
- Baskervill, Charles Read. "The Genesis of Spenser's Queen of Faerie." *Modern Philology* 18 (1920): 49-54.
- Berger, Harry. *The Allegorical Temper: Vision and Reality in Book II of Spenser's 'Faerie Queene'*. Oxford: Oxford UP, 1957.
- Briggs, Katherine M. *The Anatomy of Puck: an Examination of Fairy Beliefs Among Shakespeare's Contemporar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9.
- Carpenter, Frances. *Tales of a Korean Grandmother*. New York: Doubleday, 1947.
- Duffy, Maureen. *The Erotic World of Faery*.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2.
- Gale, James S., trans. *Korean Folk Tales: Imps, Ghosts, and Fai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of Im Bang and Yi Ryuk*. 1913. Rutland, VT: Charles E. Tuttle, 1962.
- Greenlaw, Edwin. "Spenser's Fairy Mythology." *Studies in Philology* 15 (1918): 105-22.
- Griffis, William. *Fairy Tales of Old Korea*. London: George G. Harrap, 1911.
_____.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1911. Charleston, SC:

- Bibliobazaar, 2008.
- Hamilton, A. C., ed. *The Spenser Encyclopedia*. Toronto: Toronto UP, 1990.
- Harvey, Gabriel. *The Works of Gabriel Harvey*. Ed. Alexander B. Grosart. 3 vols. London, 1884-85.
- Hume, Anthea. *Edmund Spenser: Protestant Poet*.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James I. *Daemonologie*. Edinburgh, 1597.
- Kirk, Robert. *The Secret Common-Wealth & A Short Treatise of Charms and Spels*. Ed. Stewart Sanderson. Cambridge: Brewer, 1976.
- Lamb, Mary Ellen. “Gloriana, Acrasia, and the House of Busirane: Gendered Fictions in The Faerie Queene as Fairy Tale.” *Worldmaking Spenser: Explorations in the Early Modern Age*. Ed. Patrick Cheney and Lauren Silberman, Lexington, KY: Kentucky UP, 2000. 81-100.
- Latham, M. W. *The Elizabethan Fairies: the Fairies of Folklore and the Fairies of Shakespeare*. New York: Columbia UP, 1930.
- Munro, Joyce Underwood. “The Invisible Made Visible: The Fairy Changeling as a Folk Articulation of Failure to Thrive in Infants and Children.” *The Good People: New Fairylore Essays*. Ed. Peter Narváez. New York: Garland, 1991. 251-83.
-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Ed. Simpson, John Andrew, and Weiner E. S. C. Oxford: Clarendon, 1989.
- Rathborne, Isabel E. *The Meaning of Spenser’s Fairyland*. New York: Columbia UP, 1937.
- Roche, Thomas P. *The Kindly Flame: A Study of the Third and Fourth Books of Spenser’s ‘Faerie Queene’*. Princeton: Princeton UP, 1964.
- Rojcewicz, Peter M. “Between One Eye Blink and the Next: Fairies, UFOs, and Problems of Knowledge.” *The Good People: New Fairylore Essays*.

- Ed. Peter Narváez. New York: Garland, 1991. 479-514.
- Scot, Reginald. *Discoverie of Witchcraft*. London, 1584.
- Spence, Lewis. *British Fairy Origins: The Genesis and Development of Fairy Legends in British Tradition*. Wellingborough: Aquarian, 1946.
- Spenser, Edmund. *The Works of Edmund Spenser*. A Variorum edition. Ed. E. Greenlaw et als. Baltimore: Johns Hopkins P, 1947.
- _____. *The Faerie Qveene*. Ed. A. C. Hamilton. London: Longman, 2007.
- Strong, Roy. *The Cult of Elizabeth: Elizabethan Portraiture and Pageantry*. London: Thames & Hudson, 1977.
- Wentz, W. Y. Evans. *The Fairy-Faith in Celtic Countries*. 1911. London: Gerrards Cross, 1977.
- Williams, Noel. "The Semantics of the Word Fairy: Making Meaning Out of Thin Air." *The Good People: New Fairylore Essays*. Ed. Peter Narváez. New York: Garland, 1991. 457-78.
- Woodbridge, L. "Amoret and Belphoebe: Fairy Tale and Myth." *Notes and Queries* 33.3 (1986): 340-42.
- Woodcock, Matthew. *Fairy in The Faerie Queene: Renaissance Elf-fashioning and Elizabethan Myth-making*. Aldershot: Ashgate, 2004.
- Wooden, Warren W. *Children's Literature of the English Renaissance*. Ed. Jeanie Watson. Lexington, KY: Kentucky UP, 1986.
- Yeats, W. B., ed. *Fairy & Folk Tales of Ireland*. New York: Macmillan, 1973.

Fairies in Spenser's *Faerie Queene*

Abstract

Jin-Ah Lee

This paper aims to closely examine fairies in Spenser's *Faerie Queene*, focusing on their history in canto 10, Book 2. The traditional fairies of folklore in Spenser's time were mostly considered to be fallen angels, natural spirits or some supernatural beings between angels and human beings. They were believed to be real and visible, smaller than ordinary people in size and usually harmful to people through witchcraft or mischievous acts. Spenser modifies this tradition, inventing an exceptional race of fairies in his encomium to Queen Elizabeth. Fairies in the *Faerie Queene* are of a human race. Spenser's fairies are the descendents of Elfe, created by Prometheus, and a female fairy from the Garden of Adonis, Fay, whose name and origin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powers superior to those of ordinary humans, suggesting the excellence of the fairy human race. Their illustrious lineage is renowned for its political, martial and cultural achievements.

Among the chief champion knights, Guyon and Calidore are fairies, and most other figures in this poem are supposedly fairies unless their nationalities are specified as a Briton or a Sanxon. While Spenser endows good fairies with heroic attributes and extraordinary powers, he ascribes many of the harmful qualities of fairies in fairy lore to the wicked figures in the *Faerie Queene*. However, Spenser's fairies are not quite identical with angels, devils, or mischievous spirits but become an allegory of human beings in whom good and evil coexist.

Key Words

Edmund Spenser, *Faerie Queene*, fairy, fairylore, fairy tales, folklore, fay, elf, fairyland

논문 투고 일자 : 2010. 1. 7

게재 확정 일자 : 2010. 2. 10